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관계 연구

노 선 옥 · 이 명 희⁺

강릉영동대학 미용예술과 조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f Hairstyle Behavior and Hairstyle Image Preference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f Women

Sun-Ok Noh · Myoung-Hee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osmetology, Kangneung Yeongdong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12. 1. 1, 심사(수정)일: 2012. 9. 2, 게재확정일: 2012. 9. 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hairstyle behavior, hairstyle image prefer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women in their 20s, 30s, and 40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hairstyle behavior, hairstyle image preference, and preferred hairstyle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The research method was a survey method using a questionnaire. Total of 674 women in their 20s, 30s, and 40s were tested, 309 of whom resid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the remaining 365 residing in Gangweon-Do. Life satisfaction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satisfaction, happiness, and physic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women's hairstyle behavior. The women with higher level of physical satisfaction had higher level of conformity, individuality, fashion, and interpersonal orientation of hairstyle. It also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o-economic satisfaction meant greater preference for graceful hairstyle images. As well as the level of happiness correlated with the preference for feminine and sophisticated hairstyle images. The women who preferred long layered wave hairstyles liked feminine, natural, and sophisticated hairstyle images. The women in their late 40s had higher interpersonal orientation of hairstyle than those in their early 20s and 30s. Overall, a natural hairstyle image was favored the most, whereas a unique image was favored the least.

Key words: hairstyle(헤어스타일), hairstyle behavior(헤어스타일행동),
hairstyle image(헤어스타일 이미지), life satisfaction(생활만족도)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외모매력성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보다 능력 있게 보일 수 있고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외모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헤어스타일은 쉽게 변화가 가능하고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여성들 사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헤어스타일 등의 외모 변화를 통하여 적절한 외모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자긍심이나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다. 즉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이나 외모가 갖는 시각적 효과 조절에는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반영된다.

한편 생활만족도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느끼는 행복과 만족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은 외모향상을 통하여 자기만족이 증가되므로 외모행동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의 외모 가꾸기가 마음가짐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 여성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자신이 또 그렇게 느끼게 될 때 기분도 상승되고 삶에 변화를 일으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¹⁾ 따라서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복, 신체, 헤어스타일 등의 외모향상행동과 관련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생활만족도와 관련지어 연구된 외모 변인은 의복²⁾, 체중³⁾과의 관련연구 결과가 다소 있으나 헤어스타일행동 등의 미용행동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은 여성의 외모 특성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인이므로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모 변인 중 헤어스타일을 택하여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구체적인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는 헤어스타일을 다양하게 가꾸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를 알아보고,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련 변인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미용학의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생활만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미용행동의 효용성을 밝히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만족도와 외모관련행동

생활만족도란 각 개인이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의 감정 상태이다.⁴⁾ 생활만족에 대하여 Neugarten et al.⁵⁾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Campbell⁶⁾은 생활 전반에 대한 실재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임점주⁷⁾는 생활만족도가 심리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외모 관련 연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는 외모지상주의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Lennon과 Rudd⁹⁾는 이상적인 외모를 위한 노력은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수경과 고예란¹⁰⁾은 신체적 외모는 자기평가와 사회적 비교 대상이 되며

외모의 긍정적인 변화가 스트레스 원인을 감소시켜주고, 자기 만족감을 높여줌으로써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전현진과 정명선¹¹⁾은 중년여성들도 다양한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고, 이러한 외모개선은 중년여성의 생활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강영숙과 박현정¹²⁾은 외모관리의 성공적 수행은 삶 자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은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명희¹³⁾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이나 일반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체중관심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황진숙과 김윤희¹⁴⁾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 집단이 외모관심, 체중우려,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다고 하였다. 유경숙¹⁵⁾은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는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생활만족도는 의복관심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진구 외¹⁶⁾의 연구에서도 의복만족도의 세 요인인 사회성 및 외모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디자인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실용성 및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2. 헤어스타일행동

헤어스타일행동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선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선택, 태도, 신분 등을 반영한다.¹⁷⁾ 박주비¹⁸⁾는 여대생의 헤어스타일행동을 동조성, 개성, 심미성, 의존성, 편의성의 5개 요인으로 도출하였는데, 신체에 만족할수록 헤어 심미성을 추구하며,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헤어스타일 변화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주연 외¹⁹⁾는 여고생의 헤어스타일 태도를 헤어스타일 흥미도, 헤어스타일 개성 추구, 헤어디자이너 의존성의 3개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헤어스타일 흥미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신체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헤어스타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여고생들은 신

체만족도가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자기 헤어스타일에 대하여 아직 뚜렷한 주관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므로 신체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주비²⁰⁾의 연구와 상반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나 역할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박수현 외²¹⁾는 한국과 호주 여성의 헤어스타일행동을 비교하였는데, 헤어스타일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한국은 헤어디자이너, 의복과의 적합성, 사회적 신분을, 호주는 관리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헤어스타일행동에 있어서 동조성 추구는 국가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유행성과 개성 추구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고, 심미성 추구는 연령과 국가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²²⁾은 헤어스타일행동의 연령별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젊은 여성들은 유행에 민감하면서 헤어 연출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년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체면을 중요시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홍성임²³⁾의 연구에서 40대 후반은 스타일 연출에 관심이 많으며, 50대 이후부터는 흰머리에 관심을 두고, 소득이 높을수록 헤어관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숙희²⁴⁾의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 만족 수준은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낮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이유는 기분전환하고 싶을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진태와 김칠순²⁵⁾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현재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은 직업과 관련이 있었는데, 직장여성은 롤스트레이트, 학생은 매직 펌, 주부는 일반 웨이브 펌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헤어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기준을 보면 학생의 경우 자신만의 개성 연출을 중요시 하였으며, 직장여성과 주부의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더 많이 반영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생활만족도, 헤어스타일행동,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 인구통계적 변인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²⁶⁾를 참고하여 17개 문항을 택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헤어스타일행동은 선행연구²⁷⁾에서 16개 문항을 택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는 선행연구²⁸⁾를 참고하여 9개 문항을 택하였고,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는 선행연구²⁹⁾에서 8개 문항을 택하였으며, 5단계 평정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학력, 거주지를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강원도 지역의 20대-40대 여

성 674명이었다. 자료수집 시기는 2010년 4월-6월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거주지는 서울 및 서울근교가 45.8%(309명), 강원도가 54.2%(365명)였다. 연령 분포는 20-24세가 27.4%(185명), 25-29세가 12.5%(84명), 30-34세가 10.5%(71명), 35-39세가 17.1%(115명), 40-44세가 19.4%(131명), 45-49세가 13.1%(88명)였다. 학력은 대학생이 22.3%(150명), 고졸 이하가 22.3%(150명), 대학 졸업이 42.1%(284명), 대학원 졸업이 13.4%(90명)였다.

통계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 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t -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의 요인분석

생활만족도 17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표 1> 생활만족도의 요인분석

요인 1. 경제·사회적 만족	요인부하량
나는 한 달 수입에 만족 한다.	.73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다.	.72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겠다.	.69
나의 하루 생활 지출 정도에 만족 한다.	.63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 한다.	.56
나는 아주 좋은 생활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54
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만족 한다.	.42
전체변량(%)=21.73 누적변량(%)=21.73 고유치=3.48 α 신뢰도=.82	
요인 2. 행복감	요인부하량
나는 나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얻고 있다고 느낀다.	.76
나의 삶은 대체로 지루하고 피곤한 나날이었다(R).	-.73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72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59
나는 새롭고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만족 한다.	.54
전체변량(%)=18.23 누적변량(%)=39.95 고유치=2.92 α 신뢰도=.80	
요인 3. 신체적 만족	요인부하량
나는 균형 있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77
나는 나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만족 한다.	.75
나는 남들보다 좋은 체력을 갖고 있다.	.68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 한다.	.56
전체변량(%)=15.00 누적변량(%)=54.95 고유치=2.40 α 신뢰도=.70	

R: 역산 문항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1개를 제외한 16개 문항에 대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나는 한달 수입에 만족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경제·사회적 만족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7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나는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행복감으로 명명하였으며,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은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신체적 만족으로 명명하였으며, 4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3개 요인의 누적변량은 54.95%였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2 이상이었다. 각 변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는 .82, .80, .70으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경제·사회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의 내용은 장지선³⁰⁾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헤어스타일행동 16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모두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동조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사람들과 사귀는데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대인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유행으로, 요인 4는 “나는 헤어스타일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편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35 이상이고 누적변량은 56.53%였다. 각 변인의 α 신뢰도는 .79, .69, .79, .53이었는데, 요인 4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다.

<표 2> 헤어스타일행동의 요인분석

요인 1. 동조성		요인부하량
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85
나는 낮은 사람들과 만날 때 대체로 사람들과 비슷하게 헤어스타일을 하려고 신경 쓴다.		.76
모임에 가서 내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73
내가 속한 집단의 헤어스타일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 한다.		.71
전체변량(%)=16.73 누적변량(%)=16.73 고유치=2.68 α 신뢰도=.79		
요인 2. 대인지향		요인부하량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78
남이 날 평가할 때 내 헤어스타일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69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64
나는 나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58
전체변량(%)=15.38 누적변량(%)=32.11 고유치=2.46 α 신뢰도=.69		
요인 3. 유행		요인부하량
TV광고나 잡지에 나오는 모델의 최신 헤어스타일을 해보고 싶다.		.82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80
유행에 맞는 헤어스타일은 멋있어서 따라 해보고 싶다.		.71
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현재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따른다.		.47
전체변량(%)=14.53 누적변량(%)=46.64 고유치=2.33 α 신뢰도=.79		
요인 4. 개성		요인부하량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헤어스타일이 좋다.		.82
나는 헤어스타일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편이다.		.69
나의 헤어스타일은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47
헤어컬러는 남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색상을 주로 선택 한다.		.35
전체변량(%)=9.89 누적변량(%)=56.53 고유치=1.58 α 신뢰도=.53		

2.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의 관계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볼 때 경제·사회적 만족은 동조성 및 개성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과 개성을 동시에 중요시하였다.

행복감은 헤어스타일행동 중 대인지향, 개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을 할 때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여 대인지향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개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신체적 만족은 동조성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인지향, 유행, 개성과는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신

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관계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와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경제·사회적 만족은 단정한, 품위 있는, 독특한, 전문직 같은 이미지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경제·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하며 품위 있는 이미지, 독특하며 전문직 같은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선호도가 높았다.

행복감은 단정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

<표 3>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의 상관관계

(N=674)

생활만족도 화장·헤어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
동조성	.155**	-.006	.089*
대인지향	.041	.086*	.106**
유행	.072	.060	.137**
개성	.144**	.148**	.183**

* $p<.05$, ** $p<.01$

<표 4>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상관관계

(N=674)

생활만족도 이미지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
단정한	.118**	.149**	-.002
화려한	.056	.032	.125**
품위 있는	.121**	.076*	.045
독특한	.105**	.058	.158**
자연스러운	-.018	.117**	-.010
여성적인	.057	.191**	.058
전문직 같은	.134**	.179**	.116**
귀여운	.028	.068	.095*
세련된	.045	.132**	.122**

* $p<.05$, ** $p<.01$

관계를 보였다. 즉 행복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단정하며 품위 있는 이미지, 자연스러운 이미지, 여성적인 이미지, 전문직 같으며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신체적 만족은 화려한, 독특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귀여운 이미지와는 $p<.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화려하며 독특한 이미지, 전문직 같으며 세련된 이미지, 귀여운 헤어스타일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은 타인에게 나타나는 외모형태에 만족하므로 자신의 헤어스타일에서도 눈에 띄는 화려하며 독특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선호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각 칸의 수치는 beta 값을 나타낸다.

단정한 이미지와 품위있는 이미지 선호에는 단발 스트레이트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가 영향을 주었다. 즉 단정한 이미지와 품위있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여성들

은 단발 스트레이트와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를 선호하였다. 화려한 이미지 선호에는 짧은 컷 웨이브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의 순으로 영향을 주어, 화려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짧은 컷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독특한 이미지 선호에는 짧은 컷 웨이브, 짧은 컷 스트레이트의 순으로 영향을 주어, 독특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짧은 컷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자연스러운 이미지 선호에는 층이 있는 롱 웨이브, 단발 웨이브의 순으로 영향을 주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나 단발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여성적인 이미지 선호에는 층이 있는 롱 웨이브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9.4%였다. 즉 여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와 단발 스트레이트를 선호하였으며,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선호하지 않았다. 전문직 같은 이미지 선호에는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스트레이트의 순으로 영향을 주어, 전문직 같은 이미지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와 짧은 컷 스트레이트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귀여운 이미지 선호에는 단발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세련된 이미지 선호에는 층이 있는 롱

<표 5>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선호 헤어스타일

독립변인	종속변인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세련된
짧은 컷 스트레이트	-	-	-	.092*	-	-	-.150**	.099*	-
단발 스트레이트	.185**	-	.129**	-	-	.104*	-	-	-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104*	-	.091*	-	-	-	-	-	-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	.109*	-	-	-	-	.129**	-	-
짧은 컷 웨이브	-	.158**	-	.202**	-	-	-	-	-
단발 웨이브	-	-	-	-	.117**	-	-	.190**	.109**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	-	-	-	-	-	-	-	-
층이 있는 롱 웨이브	-	.144**	-	-	.177**	.242**	-	.148**	.212**
R^2	.059	.064	.034	.064	.050	.094	.023	.064	.062
F	21.14**	15.15**	11.70**	23.12**	17.48**	23.22**	7.72**	22.85**	22.03**

* $p<.05$, ** $p<.01$

웨이브, 단발 웨이브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귀여운 이미지와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와 단발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의 설명력(R^2)은 24.9.4%로서 설명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련 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령에 따라 대인지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40대 후반 여성이 헤어스타일의 대인지향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은 여성은 헤어스타일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원³¹⁾의 연구에서 45-60세 여성들은 헤어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40대 여성의 경우 대인관계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³²⁾ 헤어스타일 행동에 있어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지에 따라 헤어스타일의 동조성과 유행은 유

의적인 차이를 보여, 강원도 지역의 여성이 서울 여성보다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과 유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서울보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타인과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려 하며,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맞추려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에 따라 헤어스타일행동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인 헤어스타일행동의 평균을 비교할 때 여성들은 대인지향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 개성, 유행, 동조성의 순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을 할 때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 하면서도 자기 고유의 개성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연령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를 살펴보면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귀여운 이미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단정한 이미지는 30대 후반 및 4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20대 전반은 선호도가 낮았다. 화려한 이미지는 2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30, 40대 여성이 선

<표 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의 차이

(N=674)

인구통계적 변인		헤어스타일행동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
연령	20-24세		2.31	3.33b	2.97	3.17
	25-29세		2.31	3.51ab	3.02	3.17
	30-34세		2.26	3.40b	2.99	3.26
	35-39세		2.25	3.50ab	3.00	3.20
	40-44세		2.32	3.46ab	2.99	3.15
	45-49세		2.36	3.60a	2.91	3.28
	<i>F</i>		.27	2.56*	.20	.65
거주지	서울		2.23	3.41	2.87	3.18
	강원도		2.37	3.46	3.07	3.21
	<i>t</i>		-2.44*	-.52	-3.31**	-.66

* $p < .05$, ** $p < .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호하였으며, 20대 전반은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특한 이미지는 2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30대와 40대 후반 여성이 선호하였다. 여성적인 이미지는 3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20대 전반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 같은 이미지는 3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20대 전반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세련된 이미지는 20대 후반 및 30대 여성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를 볼 때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졸 이하와 대졸, 대학원 졸업의 여성은 단정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은 단정한 이미지에 대하여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화려한 이미지는 대학생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고졸 이하와 대학원 졸업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은 대학원 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과 고졸 이하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대졸과 대학원 졸업 여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성적인 이미지는 고졸 이하와 대졸 여성이 가장 선

호하였으며, 대학생은 가장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 같은 이미지는 대학원 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세련된 이미지는 대졸과 대학원 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다.

거주지에 따라 화려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의 선호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화려한, 전문직 같은, 세련된 이미지를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소영³³⁾의 연구에서 대전, 충남지역보다 서울, 경기지역 여대생이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더 추구하였다는 내용과 유사한 결과였다.

전체적으로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평균을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김정순³⁴⁾, 윤소영³⁵⁾의 연구에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8〉에서 선호 헤어스타일의 연령별 차이를 볼 때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30대 전반의 선호도가 낮았고,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는 30대 전반 여성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40대 후반은 선호도가 낮았다. 짧은 컷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40대 후반 여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30대 전반이 가장 낮은

〈표 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차이

(N=674)

인구통계적 변인	이미지	단정한	화려한	품위 있는	독특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전문직 같은	귀여운	세련된
연령	20-24세	5.15c	3.74ab	4.49b	3.45a	5.50b	5.09c	4.02c	4.49	5.20b
	25-29세	5.31bc	4.00a	4.49ab	3.33ab	5.74ab	5.39abc	4.43abc	4.68	5.62a
	30-34세	5.62ab	3.70ab	4.99a	3.00ab	6.00a	5.69a	4.58ab	4.66	5.72a
	35-39세	5.77a	3.25c	5.10a	2.90b	5.99a	5.39abc	4.71a	4.30	5.65a
	40-44세	5.73a	3.46bc	5.17a	3.16ab	5.76ab	5.27bc	4.49ab	4.20	5.49ab
	45-49세	5.64ab	3.43bc	5.19a	3.10ab	5.83a	5.52ab	4.26bc	4.30	5.44ab
	F	6.36**	3.56**	6.20**	2.41*	3.99**	3.48**	4.12**	1.87	2.99*
학력	대학생	5.11b	3.87a	4.65b	3.48	5.51b	5.07b	4.06c	4.45a	5.27b
	고졸 이하	5.59a	3.39b	4.83b	3.15	5.71ab	5.45a	4.16bc	4.58a	5.19b
	대학졸	5.60a	3.59ab	4.97ab	3.10	5.85a	5.42a	4.44b	4.41ab	5.60a
	대학원졸	5.70a	3.47b	5.26a	3.07	5.97a	5.31ab	5.01a	4.09b	5.87a
		F	7.21**	2.98*	4.17**	2.41	4.59**	3.54*	9.84**	2.14
거주지	서울	5.52	3.73	5.00	3.28	5.83	5.27	4.55	4.39	5.66
	강원도	5.48	3.47	4.83	3.11	5.69	5.39	4.22	4.44	5.31
		t	.39	2.27*	1.65	1.47	1.68	-1.31	3.03**	-0.39

* $p < .05$, ** $p < .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선호도를 나타냈다. 층이 있는 롱 웨이브는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여성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비교하면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여성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30대 후반 및 40대는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를 선호하였다.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 또한 30대 이후의 여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짧은 컷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³⁶⁾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쇼트 펄 헤어를 가장 선호하였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30대 전반이 특히 짧은 컷 헤어의 선호도가 낮고 롱 웨이브를 선호하였던 것은 30대 전반 여성들이 여성적이며 귀엽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학력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의 차이를 보면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웨이브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는 대학원 졸업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은 선호도가 낮았다. 층이 있는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은 대학생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

학원 졸업의 여성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³⁷⁾에서 여대생들이 긴 길이의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였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거주지에 따라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선호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서울 여성이 강원도 여성보다 짧은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동금³⁸⁾의 선행연구에서 수도권 여성의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헤어 길이에 있어 짧고 활동성 있는 단발형을 선호하였으며, 김병미, 유미근³⁹⁾의 연구에서 서울 여성이 지방 거주 여성보다 더 커트머리를 선호하였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관계를 파악하고,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에 영향을 주는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를 알아보며,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헤어스타일 관련 변인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

<표 8>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선호 헤어스타일의 차이

(N=674)

인구통계적 변인	헤어스타일	짧은 컷 스트레이트	단발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	짧은 컷 웨이브	단발 웨이브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연령	20-24세	3.89a	4.06	3.90	4.57ab	4.16ab	4.41	4.67	5.11ab
	25-29세	3.64a	3.98	4.15	4.51ab	4.05ab	4.37	4.75	5.35a
	30-34세	2.87b	3.85	4.07	4.70a	3.31c	4.31	4.70	5.42a
	35-39세	3.51a	3.88	4.03	4.18b	3.95ab	4.47	4.91	4.77bc
	40-44세	3.94a	4.02	4.26	4.18b	3.82b	4.11	4.76	4.38c
	45-49세	3.91a	3.61	4.20	3.61c	4.39a	4.20	4.53	3.95d
	F	4.67**	1.10	1.20	6.64**	4.29**	1.06	.88	14.36**
학력	대학생	3.93	4.09	3.89c	4.47	4.13	4.38	4.63	5.11a
	고졸 이하	3.73	3.84	4.29ab	4.23	4.0	4.31	4.86	4.59bc
	대학졸	3.50	3.82	3.99bc	4.29	3.92	4.38	4.71	4.93ab
	대학원졸	3.92	4.16	4.37a	4.24	3.84	4.04	4.70	4.40c
	F	2.59	1.66	3.60*	.78	.81	1.37	.77	5.74**
거주지	서울	3.94	4.15	4.11	4.28	4.14	4.38	4.70	4.80
	강원도	3.50	3.75	4.06	4.34	3.85	4.27	4.75	4.84
	t	3.24**	3.25**	.40	-.52	2.22*	.96	-.52	-.37

* $p < .05$, ** $p < .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었다. 조사대상자는 20, 30, 40대 여성 674명으로 서울의 수도권 지역 여성이 309명, 강원도 지역 여성이 365명이었다.

첫째, 헤어스타일행동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차원은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이었다. 생활만족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차원은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이었다.

둘째, 경제·사회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동조성과 개성을 중요시하였고, 품위 있고 전문직처럼 보이는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행복감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에서 대인지향과 개성을 중요시 하였고, 여성적이며, 세련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신체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행동 중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요시 하였으며, 화려하며 독특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셋째, 짧은 컷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전문직 같은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여성적인 이미지는 선호하지 않았다. 단발 스트레이트와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를 선호할수록 단정하며, 품위있는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층이 있는 롱 스트레이트는 화려하며, 전문직 같은 이미지 선호와 관련되었으며, 짧은 컷 웨이브는 화려하며 독특한 이미지, 단발 웨이브는 자연스럽고 귀여우며, 세련된 이미지 선호와 관련이 있었다. 층이 있는 롱 웨이브를 선호하는 여성들은 여성적인 이미지와 자연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넷째, 헤어스타일행동 중 대인지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40대 후반 여성이 20, 30대보다 대인지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강원도 지역 여성은 서울 지역 여성보다 헤어스타일의 동조성과 유행을 더 중요시 하였다.

다섯째,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 중 단정한 이미지와 품위 있는 이미지는 30, 40대가 2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독특한 이미지는 20대 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전문직 같은 이미지는 30대 후반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다. 서울 지역 여성은 강원도 지역 여성보다 세련된 이미지와 화려한 이미지의 선호도

가 높았다. 헤어스타일 이미지 선호의 평균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여섯째, 선호 헤어스타일 형태의 연령별 차이를 볼 때, 20대 후반 및 30대 전반 여성은 층이 있는 롱 웨이브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였고,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30대 전반이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30대 전반이 짧은 컷 헤어의 선호도가 특히 낮고 롱 웨이브를 선호하였던 것은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여성적이며 귀여운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표현됨을 의미한다. 짧은 컷 웨이브는 40대 후반 여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후반과 40대는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웨이브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층이 있는 중간 길이의 스트레이트는 대학원졸 여성이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서울 지역 여성은 강원도 지역 여성보다 짧은 컷 스타일과 단발 스트레이트를 더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짧은 컷 스트레이트는 가장 선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사회적 만족, 행복감, 신체적 만족과 같은 생활만족도는 헤어스타일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은 다양한 헤어스타일행동을 중요시 하였다. 또한 40대 후반 여성이 20, 30대보다 헤어스타일의 대인지향을 더 중요시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Ash, M. K. (2003), *메이케이의 아름다운 성공신화: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정미홍 역, 서울: 나무와 숲, pp. 155-233.
- 2) 김진구 외 (1996),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외모만족도에 따른 의복만족도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1), pp. 57-74.
유경숙 (1984),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3.
- 3) 이명희 (2009),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복식*, 59(8), pp. 97-109.
- 4) 최현 (1997), 건강 수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
- 5) Neuqarten, B. L., Harviq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pp. 134-143.
- 6)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 American Psychologist*, 31(2), pp. 117-124.
- 7) 임접주 (2010), 노인여가행태와 자기통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8) 강상현 (1999),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 9)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3(2), pp. 94-117.
 - 10) 이수경, 고애란 (2006), 외모향상추구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 pp. 59-70.
 - 11) 진현진, 정명선, *op. cit.*, pp. 115-129.
 - 12) 강영숙, 박현정 (2009),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5(1), pp. 363-373.
 - 13) 이명희, *op. cit.*, pp. 97-109.
 - 14)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 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pp. 143-155.
 - 15) 유경숙, *op. cit.*, p. 43.
 - 16) 김진구 외, *op. cit.*, pp. 57-74.
 - 17) 박숙현, 류은혜, 이순덕 (2006), 한국과 호주여성의 헤어스타일 행동 및 선호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pp. 129-139.
 - 18) 박주비 (2004),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 및 신체 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행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2.
 - 19)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 성향과 신체 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pp. 715-726.
 - 20) 박주비, *op. cit.*, pp. 50-52.
 - 21) 박숙현, 류은혜, 이순덕, *op. cit.*, pp. 129-139.
 - 22) 이혜원 (2006), 의복관여와 헤어태도 및 헤어관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1-75.
 - 23) 홍성임 (2007), 소득에 따른 중년층의 외모관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8.
 - 24) 양숙희 (2002), 헤어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행태와 관련 요인 분석, 경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 25) 정진태, 김칠순 (2009), 토털 패션 Styling을 위한 헤어 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17(1), pp. 90-104.
 - 26) 김재인 (1986), 후기 성인의 사회 교육적 학습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탐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4; 이희정 (2004), 성인여성의 여가 교육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6-57; 장지선 (2009), 필라테스 참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0; 이종길 (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6.
 - 27)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 최수경 (2007),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7-109.
 - 28) 이화순, *op. cit.*, p. 50.
 -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 139-150.
 - 29) 이효숙 (2008), 헤어스타일의 시각적 평가에 따른 이미지 분류 및 선호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1.
 - 30) 장지선, *op. cit.*, p. 60.
 - 31) 이혜원, *op. cit.*, pp. 71-75.
 - 32) 신호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 33)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9.
 - 34) 김정순 (2002), 여대생들의 Hair Style 행동에 대한 선호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8.
 - 35) 윤소영, *op. cit.*, p. 69.
 - 36) 이효숙, *op. cit.*, p. 66.
 - 37) 고성현 (2006), 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와 성격유형의 상관성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7(3), pp. 225-234.
 - 38) 신동금 (2003), 거주지별 헤어스타일 선호차이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9(2), pp. 110-121.
 - 39) 김병미, 유미근 (2004), 대학생의 헤어패션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1), pp. 1-12.